

# 오감으로 스미는 청계천의 봄

도시속 아름다운 휴식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청계천에도  
따사로운 봄의 소리가  
크고 약한 생명들을 깨우고 있다.  
복토가 솟고 물고기와 새들이 다시 찾아  
여기 돌고도는 사람들 사이에 공존하고 있다.  
청계천 봄의 소리를  
시선을 통해 들여다 본다.

